

2012. 5월 표고버섯 해외시장동향 [일본]

도쿄 aT센터

□ 3월 표고버섯 수입동향

(단위:수량:kg, 금액:천엔)

구 분	2012년 3월					
	수량	전년	전년대비(%)	금액	전년	전년대비(%)
생표고	632,955	499,113	26.8	175,768	125,636	39.9
건표고	545,488	531,741	2.6	518,710	538,041	-3.6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1-3월 표고버섯 수입동향

(단위:수량:kg, 금액:천엔)

구 분	2012년1-3월 누계					
	수량	전년	전년대비(%)	금액	전년	전년대비(%)
생표고	2,284,978	1,946,315	17.4	603,601	500,734	20.5
건표고	1,427,140	1,358,313	5.1	1,295,270	1,398,739	-7.4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국가별 수입금액 동향

(단위:천엔)

품목	'12.1~3	'11.1~3	증감%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생표고	603,601	500,734	20.5	중국	602,601	한국	1,000	-	-
건표고	1,295,270	1,398,739	-7.4	중국	1,291,230	한국	3,710	홍콩	330

자료 : 일본농림수산성 통계정보

○ 3월까지의 생 표고버섯 전체 수입액은 604백만엔으로 99.8%가 중국산임.

○ 3월까지의 건표고 전체 수입액은 1,295백만엔으로 99.7%가 중국산이며 한국산은 수입액 전체의 약 0.3%(3.7백만엔)를 점유하고 있음.

□ 표고버섯 생산동향 (2010년)

	생산량(톤)	전년비증감률%	생산액(억엔)	전년비증감률%	주요생산지역
생표고	77,079	2.8	721	-4.4	도쿠시마, 이와테, 홋카이도, 군마, 토치기
건표고	3,516	-2.2	151	-6.4	오이타, 미야자키, 구마모토, 아이치, 이와테

□ 생표고 도매가격 동향 (전국평균)

(단위 : 톤, 천엔, 엔/kg, %)

	도매수량	도매금액	도매단가	전년대비 도매수량	전년대비 도매가격	전월대비 도매수량	전월대비 도매가격
2012.3월	3,915	3,024,588	773	102	90	110	85
2012.2월	3,570	3,249,750	910	100	97	94	93
2012.1월	3,784	3,713,691	981	96	102	81	102
2011.12월	4,732	4,551,282	962	91	110	105	117
2011.11월	4,490	3,695,887	823	87	100	101	96
2011.10월	4,435	3,805,700	858	95	101	147	95
2011.9월	3,026	2,733,989	903	92	100	102	122
2011.8월	2,965	2,189,302	738	101	99	107	99
2011.7월	2,782	2,079,580	748	86	106	89	99
2011.6월	3,136	2,367,200	755	95	105	91	101
2011.5월	3,435	2,568,858	748	97	96	94	98
2011.4월	3,652	2,774,344	760	99	89	94	98
2011.3월	3,901	3,023,052	775	96	93	107	82
2011.2월	251	106,505	425	65	112	91	121
2011.1월	4,005	3,863,451	965	99	93	77	111
2010년	47,097	39,791,000	845	102	95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건표고 품문피해와 큐슈산 공급증가로 가격고전

건표고버섯의 가격이 침체되고 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수반하는 방사성 물질에의 불안으로부터 기업·학교등의 급식을 포함한 업무수요가 침체되고 있다. 큐슈산의 공급이 많이 추이하고 있는 면도 있어 가격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전농 표고버섯사업소가 16일에 개최한 입찰회의 평균가격은 1킬로 3341엔으로 전년대비 3%하락. 전회의 4월의 거래는 17%하락한 3741엔이었다.

일본 표고버섯 농협연합회가 15일에 개최한 거래는 36%하락한 2494엔. 22일의 거래에서는 선물 등의 수요로부터 3% 상승한 3756엔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 춘자등에의 거래문의도 나오고 있으나 전체로는 어려운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동향에 대해 JA전농은 「원자력발전사고에 수반하는 품문피해로 나고야에서 동쪽방면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급식에 건 표고버섯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증가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건 표고버섯의 연간수요량 약1만톤(수입분 포함)가운데 기업이나 시설, 학교 등의 급식수요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전농은 「가격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전망한다.

일본 표고버섯 농협연합회는 「품질은 결코 나쁘지 않지만 업자의 관동·동북산에의 경원분위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니가타현 사도시 등 한정된 인기산지의 것만(1킬로당) 4000엔 이상으로의 거래가 있을 뿐이다」라고 품문피해의 심각함을 호소한다.

또한 「서일본산을 과다하게 사들인 업자가 재고과다 때문에 구매의욕이 침체하고 있다」라고 지적. 「시세 회복은 연말선물의 준비가 시작되는 가을경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예상한다.

전국의 약 40%를 생산하는 주산지인 오이타현 표고버섯 농협에 의하면, 춘자(春子)거래가 활발한 1~4월의 평균가격은 전년을 10% 밀도는 3870엔으로 고전하고 있다. 동 농협은 「서일본산에의 수요를 근거로 해 큐슈가 출하를 너무 늘린 면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원: 5월 25일자 일본농업신문